

| 사회적 대화 현장 |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출범

노사정이 함께 자동차산업 경쟁력 강화 및 미래비전 논의

이동희 <참여와혁신> 취재기자

자동차산업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댔다. 지난 1월 24일 자동차산업 분야 노동계, 산업계, 정부, 연구기관을 아우르는 8개 기관이 참여하는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 공식 출범했다.

포럼에 참여하는 8개 기관은 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산업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이다.



포럼에서는 ▲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를 중심으로 ▲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자동차 산업 환경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 ▲ 글로벌 자동차시장 동향과 전망 ▲ 노사정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은 각 기관별 임원과 간부들로 구성·운영되며, 월 1~2회 정기적인 포럼 외에도 기관별 세미나, 회의 등을 통해 정보와 의견을 교류할 예정이다.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 운영방향

전국금속노동조합,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이하 노동계),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이하 산업계),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이하 정부)는 자동차산업의 중장기적 경쟁력 강화와 노동계·산업계·정부(이하 '당사자'라고 한다)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동 포럼을 운영하기로 한다.

가. 당사자들은 「자동차산업 노사정 포럼」(이하 포럼)을 구성하여, 국내외 자동차산업 동향 및 전망, 우리 자동차산업의 경쟁력 강화문제, 미래 환경변화가 자동차산업 생태계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논의한다.

나. 당사자들은 노사관계의 소모적인 갈등을 지양하고, 생산적인 관계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 에 대하여 논의한다.

다. 포럼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이 참여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당사자들의 논의를 지원하며, 필요시 외부 전문가 초청 세미나, 국내외 현장 방문 등을 진행한다.

라. 포럼은 1년 간 운영하기로 한다. 다만, 필요시 연장할 수 있다.

마. 동 운영(안)은 당사자 간 상호 협력의사를 확인하는 것으로 어떠한 법적인 구속력도 가지지 아니한다.